

호랑이 군단 “쌍둥이·거인 잡고 2위 탈환한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후반기 첫 단추를 잘 끼운 ‘호랑이 군단’이 2위 탈환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22일부터 홈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어 사직으로 이동해 25일부터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갖는다.

LG는 KIA에 2.5경기 차 앞선 2위, 롯데는 0.5경기 차 3위다.

KIA는 1위 한화 이글스와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스윙패를 기록하면서 8경기 차까지 벌여졌다.

우승 도전이 쉽지 않아진 만큼 현실적으로 2·3위를 목표로 후반기 순위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일단 출발은 좋다. KIA는 20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면서, 4연패에서 탈출하고 승리로 후반기를 열었다.

비로 3경기 연속 취소되면서 경기 감각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결과는 승리였다.

강화된 타선이 후반기 순위 싸움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패트릭 위즈덤이 0-2로 뒤진 3회말 동점 투런을 날리면서 후반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 홈런으로 위즈덤은 전구단 상대 홈런도 완성했다.

허벅지 부상으로 전반기 2경기를 쉬었던 최형우도 녀넌한 휴식 뒤 복귀해 4번 자리를 지켰다. 여기에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과 김선빈도 나란히 5·6타자로 복귀전을 치렀다. 상대 입장에서 산 넘어 산의 타순이 재구축됐다.

마운드에도 호재가 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가 20일 NC전을 통해 건강하게 복귀전을 치렀다.

이의리는 2개의 솔로포는 맞았지만 64개의 공으로 4회를 2실점으로 마무리했다. ‘이의리표’ 직구를 보여준 이의리는 32개의 스트라이크와 32개의 볼을 던지면서 제구 속에는 남였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귀전을 소화했다.

2.5게임차 LG와 안방 격돌
반 경기차 롯데와 사직 대결
강화된 타선 순위싸움 원동력
오늘 선발 네일 ‘연승’ 선봉에

불펜의 키를 쥐고 있는 성영탁도 후반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날 2-2로 맞선 5회초 이의리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성영탁은 21개의 공으로 피안타 없이 탈삼진 하나를 더한 호투로 2이닝을 막았다.

전반기 ‘깜짝 스타’가 돼 올스타전에도 다녀왔던 성영탁은 “1군 올스타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경험한 것 같다. 살살 던지다가 계속 맞아서 변화구 섞어 던지기도 했는데 액땀했던 것 같다(웃음)”며 “확실히 쉬고 나오니까 마운드에서 공이 넘어오는 게 달라서 편하게 던졌던 것 같다. 원하는 대로, 보고 던지는 대로 공이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자신 있게 던졌던 것 같다”고 후반기 첫 등판을 평가했다.

또 “카운트도 빠르게 갔고, 공격적으로 피칭해서 좋았다. 이렇게 2이닝 던지면서 6타자만 상대하면 좋을 것 같다”며 “쉬면서 경기 감각 떨어지까 걱정했는데 마운드 올라가니까 바로 던져졌다. 컨디션이 좋아서 잘 던진 것 같다. 컨디션 유지 잘 하겠다”고 밝혔다.

순위 싸움의 중요한 한 주, 제임스 네일의 어깨가 무겁다.

후반기 첫 선발로 출격을 준비했던 네일은 폭우로 3일 연속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22일 LG전으로 네일의 등판 날짜가 바뀌면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숙제가 됐다.

LG 새로운 피 송승기와 맞대결을 하는 네일은 27일 롯데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날씨 변수를 만난 네일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연승을 잇고 순위 싸움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가 지난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 선발로 나와 역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는 이날 417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이의리가 돌아왔다

팔꿈치 뿔조각 제거 수술 후 417일만에 등판
4이닝 2피홈런 2실점…구속 151km ‘건재 과시’
“안 아파서 좋다…환호가 야유 되지 않게 최선”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이의리답게’ 돌아왔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했던 이의리는 지난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8차전 선발로 나와 복귀전을 치렀다.

앞서 광주에 쏟아진 폭우로 3경기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제임스 네일을 대신해 이의리가 후반기 스타트를 끊게 됐다. 종아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나성범과 김선빈도 각각 5번 타자 겸 우익수와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KIA의 ‘부상 복귀날’이 됐고, 결과는 3-2 승리였다.

70구를 목표로 했던 이의리는 64개의 공으로 4회를 마무리한 뒤 2-2에서 성영탁에게 마운드를 물려줬다.

이의리는 1회 첫 상대 김주원, 2회 1사에서 만난 박건우에게 솔로포는 허용했지만 4이닝 2피안타(2피홈런) 3사구 2탈삼진 2실점의 성적을 작성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3회말 1사 1루에서 나온 위즈덤의 투런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든 KIA는 8회 상대의 실책으로 3-2 리드를 가져왔다.

9회초 2사에서 정해영이 손아섭의 투수 내야 안타와 박건우의 좌전안타로 위기는 맞았지만, 도태훈을 2루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24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복귀전에서 팀 승리를 지켜본 이의리는 “이기면 기분 좋다”며 “괜찮았다. 안 좋아도 괜찮다고 해주고 싶다. 4이닝 던졌고, 안 아팠다는 것 그 두 개가 좋았다”고 복귀전을 자축했다.

올림픽 무대에도 섰던 이의리에게도 긴장감이 들었던 하루였다.

“긴장 많이 했다. 재미있기도 했고 앞으로 몇 번이고 마운드 올라가야 하는데 스스로 호들갑 너무 떨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웃은 이의리는 “(휴련 시간에 나온 합성애) 너무 놀랐다.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셨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너무 감사드린다. 잘해야 한다. 환호성이 야유로 바뀌지 않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2개의 솔로포는 맞았지만 이 경기에서 기록된 피안타는 이 두 개뿐이었다. 무엇보다 ‘직구’ 승부에서 이의리의 힘을 보여줬다는 게 만족스럽다.

이날 64구를 던진 이의리는 47개의 직구로 승

부했다. 최고 구속 151km, 평균 146km가 찍혔다. 이의리는 체인지업 8개(130~138km), 커브 5개(123~128km), 슬라이더 4개(132~137km)도 던졌다.

이의리는 “‘오자마자 홈런 맞았네’라는 생각에 하탈하기는 했다(웃음)”며 “상대가 직구만 생각하고 들어왔고, 나는 직구만 던졌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다. 슬라이더 하나, 직구 하나에 홈런 맞았으니까 직구 던진 것치고 싸게 잘 막은 것 같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구 구사율 높여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의리를 지켜본 동료들도 여전한 구위에 감탄했다.

이날 4출루, 호수비 열전으로 승리에 역활을 한 유격수 박찬호는 “여전했다. 여전히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줬다. 볼과 스트라이크 비율도 여전히 좋지만 상대가 안타를 못 친다. 그게 이의리의 강점이다”며 “건강하게 마운드로 다시 올라온 게 너무 감격스럽고, 안 아프고 던질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이의리의 복귀를 반겼다.

이의리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허리 싸움을 이끌어 준 성영탁도 “확실히 다르다. 직구가 다르다. 내가 그런 직구 가지고 있으면 공 잡는 날 행복할 것 같다(웃음)”며 “의리 형 공이 너무 좋아서 걱정했다. 타자들이 그 공을 보다가 내 공을 보면 쉽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른 패스트볼과 투심 던져서 통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가 22일 김천상무를 상대로 한 달 만에 홈경기를 치른다.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변준수(가운데)가 선발로 출전해 광주 수비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상위권 도약 재시동

오늘 홈서 K리그1 23R 김천상무전…아사니 활약 주목

광주FC가 ‘에이스’ 아사니를 앞세워 홈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3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 6월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맞대결 이후 한 달 만에 진행되는 홈경기에서 광주는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광주는 A매치 휴식이 이후 펼쳐진 지난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아쉬운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아사니가 후반 32분 페널티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수원FC ‘이적생’들의 공세에 무너졌다. 서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윌리안이 ‘옛친정’ 광주의 골대를 뚫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또 다른 이적생 안드레고의 크로스는 골키퍼 김경민 손에 걸렸지만 뒤로 공이 흐르면서 광주의 자책골이 됐다.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광주는 홈 2연전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해 재시동을 건다.

난적과의 대결이 이어진다. 22일 김천상무를 상대하는 광주는 26일에는 ‘1위’ 독주 중인 전북현대와 대결한다. 험난한 홈 연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광

주는 일단 김천상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수원 원정서 승점 추가에 실패한 광주는 8승 7무 7패(승점 31)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3위에 위치한 김천상무(10승 5무 7패·승점 35)와는 승점 4점 차다.

8위 강원FC(8승 5무 9패·승점 29)가 승점 2점 차로 광주를 위협하고 있다.

매라운드 순위가 뒤집히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는 물오른 아사니를 앞세워 순위 싸움을 이어나간다.

아사니는 올 시즌 19경기에 나와 7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팀 내 최다 득점 및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아사니는 앞선 수원 원정에서도 속이 땀 뚫리는 페널티킥을 선보이면서 남다른 원발 실력을 보여줬다.

수비도 든든하다. 동아시아컵을 통해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거듭난 변준수도 앞선 수원FC전 후반기 교체 출전으로 컨디션 조율을 끝내고, 선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 달만에 안방 그라운드에 오르는 광주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U대회 메달 소식

광주시체육회 김지옥 다이빙·전남도청 김태희 펜싱 동메달

2025 라인-투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메달 소식을 전했다.

광주시체육회 김지옥은 20일 진행된 다이빙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옥은 김영택(제주도청), 오수연(국민체육진

흥공단), 김나현(강원도청)으로 구성된 혼성 팀 경기에서 400.10점을 합작하면서 독일(437.10점), 중국(429.10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김지옥은 김영택과 출전한 남자 10m 싱크로 경기에서도 중국(437.31점), 독일(400.74점)에

이어 377.6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남도청 소속 김태희(한체대)는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김태희는 김나경(계룡시청), 임태희(계룡시청), 박하빈(충북도청)과 팀을 이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강팀들을 꺾고 4강행을 확정했다.

한국은 ‘펜싱 중주국’ 프랑스와의 준결승에서 43-44로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난 스위스를 45-33으로 꺾고 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 기자 wool@